

지역 소식통

부안 구담마을 윤재형씨 '주산면지' 편찬 협찬

부안 주산면 구담마을 윤재형 씨가 9일 주산면지 편찬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100만원을 쾌척 하였다. 윤재형씨는 소주리 구담마을 前 이장이었으며, 현재 구담마을에서 떡방앗간을 운영 하고 있다.

윤재형씨는 "차라저는 면의 오래된 역사 문화를 담아 후대에 물려주는 면지 편찬이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며, "주산면지" 편찬을 통해 면민이 공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중률 추진위원장은 "면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재 면지 편찬 추진위에서는 많은 면민분들의 관심 하에 면지 집필을 추진하여 열달 및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편찬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좋은 면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보건소, 전통시장 고창고에서 금연 캠페인

고창군보건소가 지난 8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전통시장과 고창고등학교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날로 올해 35회째를 맞았다.

이번 캠페인은 담배, 그 시작과 끝은 모두 환경 파괴입니다.는 슬로건으로 흡연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까지 파괴됨을 알렸다. 또 자발적인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책자와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고창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물질 등 금연교육모형을 전시해 흡연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고창군보건소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단비처럼 찾아온 네팔 근로자

고창군, 2차 47명 입국... 이태방지교육 후 65곳 농가 배치

전북 고창군이 농촌 일손을 도울 네팔 계절근로자 47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도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이태방지 교육을 마친 후 계약이 체결된 65곳의 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일손을 돕게 된다. 더불어 고용농가에 대해서도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 등 고용주 교육도 진행



이태방지교육을 마친 네팔 계절근로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올 3월에 법무부로부터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 승인받아 네팔 마차푸치메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차로 97명이 입국했다. 이번 입국까지 모두 140여명의 네팔 계절근로자가 고창에서 일하게 됐다.

이박에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도 지난달부터 입국해 이민자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근 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수급되어 농번기 인력난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여성 취업 전문가인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 양성 '앞장'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맞춤형 전문조리사' 양성 현장실습

여성 취업 전문가인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취업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체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다.

관련해 새일센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조리사 양성과정'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런 교육은 취업 의지가 강한 미취업 여성들이 다양한 조리·급식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인으로 양성하는 전문자격증 과정이다.

총 3일간 진행된 현장실습에서 교육생들은 등원예프렌치비와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해 지역 내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등 10개소의 조리 현장에서 식재료 전처리와 위생관리, 배식 등의 현장실무를 경험했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실제 조리 현장에서 이뤄진 실습 교육을 통해 취업 희망 여성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자격증 취득 후 조리 및 급식 관련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맛 최고! 영양 만점! 정읍 명품 체리 '본격 출하'

유망과수... 28개 농가서 재배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정읍 체리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했다.

정읍 체리는 딸기의 6배, 사과 20배에 달하는 철분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정읍 체리는 수입산에 비해 방부제와 화학첨가물이 적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과육이 두꺼운 단맛 위주의 수입 체리에 비해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조화로운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농산물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수년 전부터 유망과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 체리는 201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되어 현재 28개 농가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정읍 체리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했다.

12ha를 재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체리 연구회는 정읍 체리의 경쟁력 확

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품질 멜론 생산 재배 기술 지원 나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지도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욱)는 9일 지역 내 멜론연구회원과 관심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멜론 재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재배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과 생산기술 향상 평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 나종대 박사가 강사로 나서 멜론 시비와 재배관리 방법 등을 전수했다.

특히 멜론 주산단지에서 반복 제기되는 연작장애와 병해충 등의 영농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약 안전 사용 요령과 물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또한 평소 회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복 멜론연구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멜론의 재배 관리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고품질 멜론을 생산해 우리 지역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농업인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멜론연구회는 현재 회원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찬복 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해 정읍지역 선도 연구회로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정보화 농업연구회, 직거래장터 열어

부안군정보화농업연구회(부정농, 회장 황향순)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변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한다고 밝혔다.

부정농은 회원 간의 단합과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온라인 마케팅 및 직거래의 운영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자체적인 교육으로 정보화 역량을 강화는 단체이다.

이날 전시 판매할 농특산물은 명당연향 연구근기루, 내추얼람 오디제품, 슬지제빵소 곰소천일염, 태천블루베리, 신북농장 노루공영이버섯, 형지표고버섯, 미구가 부안해풍양파즙, 백련농장 유기농청국장, 뽕이도리 소문난편유,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제12회 정보화 경진대회에 블루그로스팀, 페북라이브방송, 개인 UCC 청·장년부, 정보화 활동상 수상을 목표로 해당 분야별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